

『金匱秘方』에 대한 문헌적 고찰

유준상 · 신우용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book 『Sasang Geumge Bibang』

Yoo Jun-Sang, Shin Woo-Yo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myung Univ.

1. Objectives

This study is written to investigate the bibliographical facts on the book 『Geumge Bibang (Secret Prescriptions of Sasang Golden Box)].

2. Methods

The Bibliographical study through chronological research of several books concerning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cluding 『Dongyisusebowon』, 『Dongyisasangjinryoeuijeon』 after Dr. Lee Je-Ma's death was accomplished.

3. Results and Conclusions

There are so many herb medicines using just one herb drug not several herb drugs according to many diseases in this book. According to the writer of this book, Lee Min-Bong, just one herb drug to each disease was a useful way to treat that disease in a poor countryside life. There are 85 adult's diseases, 8 women s' diseases, 47 children s' disease, 11 smallpox's diseases and 30 grotesque diseases.

This book of 『Geumgebibang』 was written by Lee Minbong not by Cheondeoksanin in 1935 and published in 1936 and it was the first book covering the herb drug and diets to treat disease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al Types. It was first found in this book that Sasang could be explained with Yin-Yang relationship and Sasang Constitutional Types could be explained with characters like dragon, cow, donkey and horse, and with classification of faces and behaviors.

Key Words : Sasang Geumge Bibang(Secret Prescriptions of Sasang Golden Box), Lee Min-Bong, Sasang Constitution

I. 序 論

東武 李濟馬 先生(1837-1900)이 돌아가신 후에 발간된 四象醫學 관계서적들이 여러 권 있는데,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東醫四象新編』, 『東醫四象診療醫典』이 있다. 대부분이 처방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1929년 출판된 『東醫四象新編』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만들어졌다¹⁾. 『金匱秘方』은 본

래 乙亥年(1935년) 李民鳳씨에 의해 저술되어 1936년 출판된 것으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사상체질별로 단방약물을 분류하여 놓은 책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학계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金匱秘方』에 대해 연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金匱秘方』에 대한 연구

국내에는 2개의 출판본이 있는데, 가장 처음 발

1) 윤보현, 박성식. 『東醫四象新編』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29.

• 접수일 2005년 6월 29일; 승인일 2005년 8월 13일
• 교신처자 : 유준상
충북 충주시 봉방동 836번지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82-43-841-1734, FAX: +82-43-856-1731
E-mail: hiruk@dreamwiz.com

간된 것으로는 1936년 京城 中央印書館에서 납활자본(鉛活字本)으로 출판된 것이다. 저자는 李民鳳씨이며, 安璋鎬씨가 1936(丙子)년에 서문을 썼으며, 李商雨씨가 1935년(乙亥)에 跋文을 썼다. 본래의 책 이름은 『金匱秘方』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것은 1940년(昭和15年)에 著作發行 兼 印刷人 李泰浩씨라고 적어 있으며 京城 杏林書院에서 출판된 『東武遺稿 四象金匱秘方 全』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다시 1971년 東武先生 原著 天德山人 增補라고 하여서 杏林書院에서 같은 제목 『東武遺稿 四象金匱秘方 全』으로 출판되었다. 1940년과 1971년 발행된 이 책들에는 본래 있던 서문과 발문이 없어지고 바로 四象論부터 시작되어 있다. 따라서 李民鳳씨가 저자인지를 밝힐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1941년 간행된 『東醫四象診療醫典』은 序文을 天德山人이 썼고, 敍言을 杏坡 李泰浩씨가 썼으며, 저자는 李泰浩씨이다. 李泰浩씨는 『舍岩道人鍼灸要訣』을 譯註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1) 서문의 내용

1936년 출판된 『金匱秘方』의 서문에서 安璋鎬씨는 李民鳳씨가 가난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여러 책에서 발취하여 金匱秘方이라 이름지어 가정에 비치할 책으로 삼도록 하였다고 적고 있다²⁾.

2) 책의 구성

敍文에 이어서, 「四象論」, 「四象辨」, 「四象演義」, 目錄이 나오고, 본문의 내용은 內篇, 外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內篇에는 각종 질환이 中風不語부터 癩癰까지 85종 나열되어 있고, 外篇에는 婦人門으로 8종의 질환, 小兒門으로 初生雜症 47종, 痘疹 11종이 기록되어 있다. 부록으로 기이한 질환(奇異疾) 30종이 있고, 부록 처방으로 20종이 있다

각 질환에 대해서 사상체질별로 太陽人,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순서로 단방약물이 1개내지 7개

까지 기재되어 있다. 내편의 16번째 증상인 中毒에 대해서는 四象을 막론하여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砒石, 金石의 독을 비롯해서 48종의 독에 대한 해독방법을 적고 있다. 43번째 증상인 丹毒 46번째 打傷, 47번째 跌撲, 48번째 諸骨硬, 79번째 蟲獸傷, 80번째 湯火傷, 82번째 癰腫, 83번째 瘡瘍은 사상체질과 관계없이 通用하라고 되어 있다. 婦人門에서는 사상체질별로 약물을 분류해 놓은 질환도 있으며, 四象體質通用이라고 된 부분도 있다. 小兒門의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사상체질 구별 없이 통용하도록 되어 있다.

부록으로 기이한 질환(奇異疾) 30종과 20개의 처방을 실어 놓았다. 끝으로 李商雨씨가 쓴 跋文이 있다.

Table 1. Chapters of Geumgebibang editions

	1936년 출판본	1940년, 1971년 출판본
敍文	○(있음)	×(없음)
四象論	○	○
四象辨	○	○
四象演義	○	○
目錄	○	○
內篇	○	○
外篇	○	○
跋文	○	×

3) 발문의 내용

李民鳳씨와 安璋鎬씨 두 사람이 濟衆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책이 나오게 된 것이며, 옛사람들의 처방은 상세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으며 헛튼 소리나 가식이 없으며 다소간의 시험을 거쳐서 이룩된 것으로 이제 사람의 나이, 虛實 병이 오래된 것인지 최근 것인지 緩急을 따지고, 약제를 잘 선택해서 時氣의 寒溫을 헤아려 製劑 및 法製를 잘 하여 溫涼補瀉를 하면 병에 적중할 것이라고 하였다³⁾.

3) 『金匱秘方』跋: 之方也 李安兩君 有意於濟衆 善且美矣 苟能家儲而戶藏 何患無青囊之訣哉 或難之曰一試二試 至于百試千試 試而不中 將若之何不然 古人之處方 詳審細密 無虛套假飾 而曾經多少試驗然後 乃可命之 今若察人之老少虛實審病之遠近緩急 擇藥材之真假 度時氣之寒溫 湯炮丸散隨其方溫涼補瀉 得其宜何不中之有哉 或曰諾 歲乙亥之臨月 朏 昌寧 李商雨 跋

2) 金匱秘方 敍: (前略) 然僻村醫藥絕少之地 貧家錢物難辦之時 有病無術束手待 盡不能無憾 而若無平素識見則猝難應用難求三年之艾 愚恨之久矣 黃驪茂才李君敏鳳搜得百家諸書 摘要撮方名之曰金匱秘方 爲家庭需用藏在巾箱. (後略)

Table 2. Herb drug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al Type

四象體質	종류	藥材나 食物
太陽人	15종	蕎麥, 蘆根, 木瓜, 木賊, 鱈魚, 松葉, 松子, 松節, 松花, 五加皮, 鮭魚, 柀頭鱖, 鱈魚(鮭魚), 葡萄根, 藤, 末), 蛤蚧粉
少陽人	92종	甘遂, 羌活, 決明子, 輕粉, 苦參, 瓜蒌根, 龜甲, 枸杞子(根), 瞿麥, 蛇蚶糞, 金銀花, 凌霄花, 大戟, 大蒜, 大棗, 獨活, 冬葵子, 東壁土, 重便, 燈心, 馬齒莧, 麥芽, 牡蠣粉, 木鱉子, 木通, 沒藥, 無食子, 朴梢, 薄荷, 白茯苓, 白茯苓, 白扁豆, 鱉甲(頭), 浮小麥, 礪砂, 檳榔, 山豆根, 山雞膽, 梔子仁, 生薑, 生麻油, 生地黃, 犀角, 石膏, 石榴木東根, 蟾酥, 小麥麵, 小茴香, 水銀, 熟地黃, 神龜, 梁上塵, 靈砂(赤見蜈蚣, 五倍子, 蒿苳仁, 王不留行, 梔子, 牛蒡子, 雄豬肚, 元參, 蝟皮, 乳香, 肉蓯蓉, 忍冬藤(草), 人中白, 薔薇根, 豬(肝, 膽, 脾, 肉, 兒豬), 赤茯苓, 赤小豆, 朱砂, 地骨皮, 知母, 地膚子, 地榆, 蜘蛛, 眞珠, 車前子, 穿山甲, (川)黃連(胡黃連), 澤瀉, 土茯苓, 破古紙, 夏枯草, 寒水石, 玄參, 荊芥(根, 穗), 虎杖根, 紅花, 滑石, 黃丹, 黃柏
太陰人	116종	(生)葛根(蔓), 粳米, 乾粟(粟子), 牽牛子, (枯)白蠟(綠蠟), 藜本, 瓜蒂, 貫衆, 槐花(九月九日)眞菊, 桔梗, 羅蔔子, 亂髮, 眞蒼子, 露蜂房, 鹿角(屑, 末, 霜, 鹿骨), 鹿茸, 代赭石, 大棗, 大黃, 大豆, 桃仁(心), 馬鞭草, 麻黃(根), 蔓荊子, 蔓荊子, 網巾, 麥門冬, 茅根, 牡蠣粉, 蕪荑, 蜜, 朴梢, 白果(仁), 白馬屎, 白芒, 白芷, 白草霜, 白丑, 釜底墨, (紫背)浮萍, 枇杷, 榧子, 檳榔, 使君子, 沙參, 蛇床子, 麝香, 山豆根, 山藥, 山棗仁, 桑木枝, 桑白皮, 常山, 桑葉, 桑螵蛸, 犀角, (石)蓮子肉, 石雄黃, 石菖蒲, 石灰, 松葉, 松脂, 醇溫酒, 升麻, 羊角, 蓮實(房, 葉, 藕), 五靈脂, 烏梅, 五味子, 五倍子, 龍骨, 龍眼肉, 龍齒, 牛角, 牛膽, 牛髓, 牛乳, 郁李仁, 雲母, 鬱金, 熊膽, 遠志, 威靈仙, 淫羊藿, 薏苳仁(根), 人骨, 紫苑, 櫻根白皮, (豬牙)皂角, 皂莢, 豬脂, 赤尾鯉魚, 葶藶子, 井泉水, 租大藤, 竈額上墨, 竹茹, 地漿, 天門冬, 穿山甲, 蔥, 貝母, 蒲黃, 芫麻子(仁), 荷葉, 海松子, 杏仁, 荊芥穗, 黃芩, 黃鱸魚, 黃牛屎, 黑大豆, 黑桑椹, 黑牛尾毛, 黑丑
少陰人	94종	蕌子肉, 甘草, 乾薑(老薑), 生薑, 乾漆, 芡實, 鷄屎白(白雄鷄糞), 桂枝(心), (生)鷄子, 苦練根白皮, 藿香, 貫衆, 狗膽, 頭, 頭鼻樑骨, 白狗頭血, 橘皮, 南星, 路傍破草鞋, 當歸, 唐木香, 唐牛膝, 大蒜, 大棗, 桃仁, 獨頭蒜, 重便, 杜沖, 蕪荑, 半夏, 防風, 白芥子, 白芨, 白豆蔻, 白蜜, 白鹽(食鹽, 青鹽), 白芍藥, 白芷, 百草霜, 白朮, (炮)附子(末), 蛇床子, 砂仁, 山查, 鼠屎, 石硫黃, 細辛, 蘇木, 燒酒, 阿膠, 艾葉, 罌粟殼, 良薑, 梁上塵, 五靈脂, 烏梅, 吳茱萸, 烏藥, 雄鷄冠血, 肉桂, 肉豆蔻, 益母草, 益智仁, 人參, 茵陳, 紫蘇葉, 紫蘇子, 漿水, 赤石脂, 丁香, 枳殼, 枳實, 陳皮, 蒼朮, 川芎, 天仙子, 川烏(頭, 草烏), 川椒, 青皮, 草果仁, 草豆蔻, 蔥莖(藥, 白), 側柏葉, 沈香, 巴豆, 海藻, 香附子, 香薷, 胡桃肉, 胡麻子, 胡椒, 紅豆蔻, 黃芪, 黃臘, 厚朴, 黑大豆, 黑羊肉

4) 저자에 관한 내용

2004년 출판된 전국 한의과대학 교재인 『四象醫學』에서는 사상의학과 관련된 서적을 소개하면서 『東武遺稿 四象金匱秘方 全』이란 책이 있는데, 1971년 杏林書院에서 출판되었고, 편저자는 天德山人으로 되어 있다⁴⁾. 그러나, 이 책은 본래 『金匱秘方』이란 책의 敍文과 跋文을 없애고 책의 제목을 『東武遺稿 四象金匱秘方 全』이라고 바꾸고, 편저자로 天德山人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래의 책인 『金匱秘方』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저자는 위에서 밝혔듯 李民鳳씨가 되는데 이 부분을 새롭게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天德山人이란 인물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東醫四象診療醫典』의 편저자로 되

어 있다. 1940년 출판된 책의 著作發行兼 印刷人이었던 李泰浩씨가 1971년 출판된 책의 篇者 天德山人과 절친한 사이가 아닐까 생각된다.

저자 李民鳳씨에 대한 연구는 더 진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李濟馬선생과의 관계나 李氏 족보를 통한 인물학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安璋鎬씨가 쓴 서문에 의하면 黃驪의 李民鳳이라고 한 부분을 미루어 보면 驪州李氏라고 생각된다.

2. 사상약물 분류에 대한 연구

기존의 사상약물분류는 『東醫壽世保元』의 태양인 단방약물을 제외하면 각 체질의 처방구성내용을 정리하여 사상약물분류를 진행하여왔다. 『東醫四象診療醫典』에는 각 체질별로 약물분류를 해 놓았는데, 少陰人 82종, 少陽人 89종, 太陰人 105종, 太陽人 10종이었다 『東醫四象新編』에서는 四象人

4)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임. 개정증보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4:40.

要藥이라고 하여서 少陰人 약물로 73종, 少陽人 약물 83종, 太陰人 약물 108종, 太陽人 약물 10종이 있다⁵⁾. 북한에서 발간된 『東武遺稿』의 脾藥 少陰人 약물은 90종, 腎藥(少陽人 약물)은 67종, 肺藥(太陰人 약물)은 61종, 肝藥(太陽人 약물)은 17종이 있다.

『金匱秘方』 내편의 85종의 질환중에 9개의 질환, 부인과질환의 약 절반정도, 소아과 질환을 제외하고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 각각 사상체질별로 사용할 수 있는 단방약물을 1개 혹은 2~7 개씩 기록하여 놓았다. 흔히 한약재로 사용하는 약물은 물론 민간에서 사용하는 동물, 식물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가령 太陰人에게 白馬屎, 少陰人에게 白雄鷄糞, 少陽人에게 蚯蚓糞, 東壁土 등이 있다. 즉 체질별 약물과 食物類가 분리되지 않았던 단계로 추정할 수 있다. 또는 각 질환별로 사용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약물과 식물류를 분리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체질별로 사용한 약물을 분류하면 Table 2 와 같다. 각 체질별로 몇 종이라고 저자 李民鳳씨가 밝힌 것은 없으며, 각 질환별로 나열된 약재를 세어서 같은 식물, 동물을 통합하여 세어 본 것이다.

3. 四象에 대한 논평 연구

『金匱秘方』 『四象論』에서는 四象의 명칭을 朱子의 말을 인용하여서 陰陽五行으로 만물을 化生시키는데 氣로써 形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고, 純陰中에 陽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를 太陰이라고 하고, 純陽中에 陰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太陽이라고 하며, 陰中에서 陽으로 치우친 경우를 少陽이라고 하며, 陽中에서 陰으로 치우친 것을 少陰이라고 하여서 四象이 나뉘어진다고 하였다⁶⁾.

『東醫四象診療醫典』의 특징을 太少陰陽에 대한 陰陽盛衰를 구체화했다는 점과 四象人의 形貌를 太陽人은 ‘龍之性’, 太陰人은 ‘牛之性’, 少陰人은

‘驢之性’, 少陽人은 ‘馬之性’이라고 하여 외부의 특징을 표현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⁷⁾, 각각 太陽人을 金氣成局, 太陰人을 水氣成局, 少陰人을 木體成局, 少陽人을 火氣成局으로 표현하였다. 『金匱秘方』에서도 똑같이 太陽人,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순서로 편집되어 있으며, 龍之性, 牛之性, 驢之性, 馬之性이 섞여 있으며, 약간 다르지만 金氣成局, 水氣成體, 木體成局, 火局成體로 되어 있다. 그런데, 『金匱秘方』의 출판년도인 1936년을 감안한다면, 『東醫四象診療醫典』보다 5년 먼저 출판된 것이며, 여기서 이미 陰陽盛衰의 표현과 形貌를 제시하였다. 여타의 다른 책들보다 앞서서 이러한 부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4. 四象人 辨別에 관한 연구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는 四象人의 體形氣像, 性質材幹, 容貌詞氣를 통해서 생리적인면, 혹은 병이 없는 상태에서 체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太陰人과 少陰人은 체형이 간혹 비슷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病證을 살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서는 병이 있을 때, 혹은 병이 진행하거나 물러날 때, 지주 생기는 질병을 중심으로 제시해 놓았다⁸⁾. 이와 같이 容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없었다. 1941년 간행된 『東醫四象診療醫典』에는 각 체질의 용모를 적어 놓았는데, 太陽人은 뚜렷(方圓)하다, 太陰人은 잠깐 흐른 것 같(似下流)으나 厚重하며 빛이 검다(黧黝), 少陽人은 목이 패(項秀)고 머리에 南北(前後로 내민 것)이 나으며 眉目이 明朗하며 입술이 얇고 下顴이 빠르(脣頰淺薄, 下顴尖)나 혹은 둥글고 적(團少)으며 빛이 희(粹白)다, 少陰人은 月形으로 둥그렇지만 혹은 馬狀도 있다고 하여서 안면의 형태에 관한 진단법을 설명하고 있다⁹⁾. 『金匱秘方』에서는 太陽人의 형체가 上下體形이 均一하고 腳力痿鈍하다고 하였으며, 太

5) 원지상, 김정렬, 양재원, 정준민, 한동윤. 동의사상신편 정답, 서울, 2002:27-28.

6) 『四象論』朱子曰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 理亦賦焉. 凡物有陰物焉 有陽物焉. 此陰陽大界分而陰中有陽 陽中有陰 不可不知也. 純陰之中 含有陽者 太陰也. 純陽之中 含有陰者 太陽也. 陰中之偏陽者 少陽也. 陽中之偏陰者 少陰也. 於是乎四象分焉.

7) 중국·연변조선민족의약연구소. 조선민족사상의학. 여강출판사, 서울, 1991:27.

8)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고실 위음. 개정증보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4:166-167.

9) <http://www.nl.go.kr> 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로 도서 검색을 ‘동의사상진료의전’으로 하여서, 원문보기를 하면, 42, 45, 52, 61쪽에 원문으로 표시됨.

陰人の 형체는 形貌似下流하며 쳐다보면 厚重深默하고 말이 적으며 기빠함과 노여움을 잘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밝게 하며 재능이 있되 살이 찢 편이고 기상이 엄연하여 예로부터 영웅이 태음인 가운데 많다고 하였다(言寡 喜怒不形內明 有深才 多肥 胖 氣像儼然 自古英雄 率多太陰中人). 少陰人は 氣像이 明亮하고 顔容이 대다수 둥근 편인데 달처럼 생기거나 아래로 긴 편이어서 말의 형상과 같다고 하였다(多圓便如月形 又有長垂 如馬¹⁰象者). 少陽人は 어깨가 평평하고 가슴이 넓으며, 上體는 실하고 下體는 약하며, 피부는 얇고 血은 적으며, 아래턱이 뾰족하고, 눈썹과 눈 부위가 맑고 명랑하며, 소리는 가늘고 밝으며, 才氣가 明敏하고, 목덜미뼈가 突出하고 머리뼈의 앞뒤가 흔히 보통 이상으로 튀어나왔다. 얼굴의 생김새는 간혹 둥글게 뭉쳤거나 작으며, 안색은 대부분 순백색을 띤다. 음식은 날것과 찬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肩平胸闊 上盛 下虛 皮血淺薄 下臑尖 眉目清朗 聲音細亮 才氣明敏 項骨秀 頭骨之南北多出 顔容或有圓小 容色多有粹白 食飲喜生冷).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이 1936년(『金匱秘方』)~1941년(『東醫四象診療醫典』) 이후에 출간된 서적 중 안면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은 대개 이 2권의 책을 모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시기상으로 볼 때 『東醫四象診療醫典』의 내용이 『金匱秘方』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Ⅲ. 結 論

『金匱秘方』의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金匱秘方』의 저작시기는 1935년에 씌어져

1936년 발간되었으며 저자는 天德山人이 아니라 李民鳳 씨이다.

2. 『金匱秘方』은 각 체질별 단방약물과 食物類만을 적어놓은 책으로는 최초의 책이다.

3. 『金匱秘方』은 현재까지 陰陽盛衰에 의해 太陽, 太陰, 少陰, 少陽을 표현한 것과 形貌에서 龍之性, 牛之性, 驪之性, 馬之性을 최초로 기재했다고 알려진 『東醫四象診療醫典』(1941년)보다 5년 정도 먼저 출판된 것이다.

4. 몇 개의 약물은 해당 체질에 적합하지 않거나, 타 체질에도 중복되어 실려 있기도 하였다

5. 사상체질 진단 중 안면에 관한 언급은 『東醫四象診療醫典』에 많이 나와 있는데, 『金匱秘方』의 내용을 따른 것이라 사료된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저자인 李民鳳씨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및 李濟馬 선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Ⅳ. 參考文獻

1. 윤보현, 박성식. 『東醫四象新編』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29.
2. 원지상, 김정렬, 양재원, 정준민, 한동윤. 동의사상신편. 정담, 서울, 2002:27-28.
3. 天德山人. 東武遺稿 四象金匱秘方 全. 행림서원, 서울, 1971:1.
4. 중국·연변조선민족의약연구소. 조선민족사상 의학. 여강출판사, 서울, 1991:27.
5.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학교실 위음 개정증보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4:40, 166-167.
6. <http://www.nl.go.kr>

10) 馬은 馬의 잘못된 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